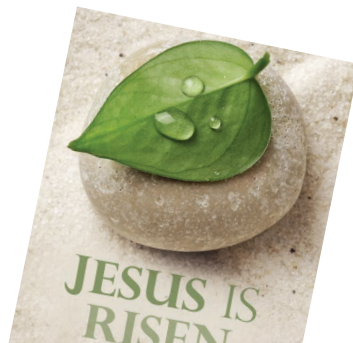




오늘의 말씀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_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오늘의 주요기사

- | | | | | | |
|---|---------|-----|--------|-------|-------|
| 2 | 신년 특집 | 4-5 | 부활절 특집 | 9 | 목회칼럼 |
| 3 | 시니어선교학교 | 6-7 | 세움학당 | 10-11 | 성도 문예 |
| 4 | 교회소식 | 8 | 사역소개 | 12 | 공동체소식 |



이처럼 다채로운 ‘나의 주님의교회’

3월 27일, 지난 두 주일 동안 공모했던 ‘나의 주님의교회’가 마감되었습니다. 같은 날 같은 교회를 다녀도 교회를 기억하는 어제와 오늘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벚꽃 만개한 봄날과 같이 화사한 자태도 있고, 낮은 곳을 찾아 흐르며 조용히 자세를 낮추는 물소리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어우러져 하나님 나라 아름다운 풍경을 이룹니다.

신년 특집
가족이 신앙교사입니다

함께 하는 소중한 시간

자녀가 부모의 스승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자녀들이 부모보다 많이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자녀를 양육하는 동안 그들로 인해 부모들이 많이 성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년특집으로 현직 아빠이며 자녀의 신앙교육에 관심이 많은 함글함글 기자가 쓴 ‘가족을 통해 배우는 신앙 이야기’와 신앙교육에 대한 좋은 책에서 명문장을 뽑아 소개하는 ‘책속의 명문장’을 연재합니다.

함글함글

가족을 통해 배우는 신앙 이야기
아이에게 배우는 집사 아빠

아이를 통해 하나님 마음을 알다

퇴근 후 식사를 하고 컴퓨터 앞에 앉았다. 오늘도 큰 아이가 쫄르르 내 옆으로 와서 묻는다. “아빠, 오늘도 잠있어?”

코로나로 인해 오프라인 모임이 없는 대신 온라인 모임이 많아졌다. 시간을 따로 내지 않아도 되어 부담이 적다보니 일주일동안 줌 모임만 네다섯번 정도가 있던 적도 있었다. 어떤 모임은 주말 이른 아침에 하기도 하지만 거의 평일 저녁이다.

대부분이 아이들 양육과 교육에 관한 모임이다. 내가 배우는 모임도 있고, 부모들을 위한 교육과정을 만드는 프로젝트 모임도 있었다. 한참 회의를 하다보면 옆에서 아이들 소리가 들린다. 그냥 듣기만 하는 강의이면 음소거를 해놓고 들으면 되는데 회의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아이들 목소리까지 마이크를 통해 온라인 회의장에 울린다. 결국 아이들에게 “아빠가 회의 중이니 조용히 해줄래?”라고 말한다.

온라인 모임에서 아이들과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책은 어떻게 읽어주면 좋은지 등등 양육과 교육에 대해 열심히 이야기를 나눈다. 그런데 그런 회의를 하는 동안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은 거의 없어졌다. 아이들을 위해 시작한 공부모임인데 그 모임을 하느라 아이들이 나에게서 방치되고 있었다. 내가 모임을 하는 날이면 저녁시간까지 아이들을 혼자 챙겨야하는 아내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좀 높아진다.

몇 개월에 걸친 프로젝트가 끝나고 다짐했다. 이제는 아이들과 함께 하는 저녁시간을 만들자고. 카카오톡 프로필에도 “함께하는 저녁시간 만들기”로 적어놓았다. 머리로 배운 것들을 이제는 아이들과 함께 나누며 실천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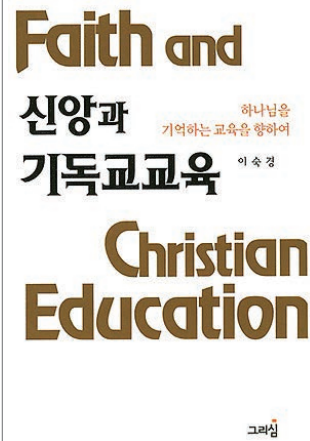
그 순간 한 가지가 더 생각났다. 내가 아이들을 위한 공부를 하는 시간에 아이들에게 신경을 쓰지 못했던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 무엇인가를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저멀리 두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시면 나는 “하나님, 지금 성경필사하느라 바쁘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요”라고 말하는 건 아니었을까? 혹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은 홀로 외롭게 두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아빠가 온라인 모임이 있다고 하면 실망의 눈빛을 보이며, 아쉬움에 모임을 하는 옆에서 노는 아이들을 보며 어쩌면 하나님께서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이들과 함께 하는 시간 만들기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 만들기도 꼭 해야겠다. 아빠와의 시간을 소망하는 아이들을 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 오늘도 아이들이 나의 신앙교사가 되었다.

책 속의 명문장

신앙과 기독교 교육



이숙경 지음, 신앙과 기독교 교육,
도서출판그리심, 2015

- 기독교교육이 믿음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을 가장 핵심에 두고 행해져야 한다는 것이 이 책의 기본 전제이다.
- 기독교교육은 자연과 인간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가르친다.... 가정과 학교 그리고 문화를 통하여 창조세계를 가르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
-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성취를 위해 교육을 명하셨다. 그 교육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교육이어야 한다. 그리고 단순한 개인의 성장이 아니라, 믿음 공동체가 함께 언약의 성취로 들어가게 하는 교육, 즉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는 교육이어야 한다.

- 기독교적으로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안다는 것은 전인적인 것이다. 즉 이해하는 것, 느끼는 것, 깨닫는 것, 판단하는 것, 행동하는 것 등을 모두 포함한다. 특히 성경적으로 안다는 것은 인격적인 것이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분을 만나고 같이 생활하고 교제하면서 아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삶이 삶의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 한 개인의 성장만이 기독교교육의 목적이 아니라, 그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자들을 세워야 하고, 그들은 사회 속에서 영향력을 미침으로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할 때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하는 것이다.
- 성경에 의하면 교육의 일차적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 학교교육이 교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교회교육 프로그램들이 다양화되고 미디어를 통한 교육적 영향도 점점 커지고 있지만,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가정교육이다.
- 부모가 균형을 잡고 자녀를 키운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다. 그것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교육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부모에게 맡기셨다. 그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겠다는 의미이기도 한다. 따라서 자녀양육에 있어서 부모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일 것이다.
- 기독교적 대중문화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바로 세계관교육이다. 세계관 교육을 통해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과 인간을 보고, 그것을 다양한 문화 콘텐츠 속에 담아낼 수 있는 기독교인들을 키워내야 한다.
- 기독교교육은 일상적인 삶을 어떻게 이해하고, 신앙과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바르게 제시해주어야 한다.
- 기독교교육은 신앙적 영웅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매일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을 키워내는 것이어야 한다.

사역소식

온라인 시니어선교학교

주님의교회에서 올해 시니어선교학교를 개최한다. 시니어선교학교는 2007년부터 시작한 초교파 시니어선교운동인 시니어선교한국에서 주관하여 진행되는 선교학교이다. 시니어선교한국은 한국 교회에 잠재되어 있는 다양한 인적 자원인 시니어들을 선교전문 인력으로 동원, 육성하고 총체적 선교사역의 활로를 개척,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세계 선교, 국내 이주민 선교, 다음세대 선교, 북한선교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주님의교회 해외선교분과위원회에서 주최하는 이번 시니어선교학교는 온라인 시니어선교학교로, 올해 4월 20일부터 6월 15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9시 30분에 온라인(ZOOM)으로 열린다. 매주 화요일 교육과정은 강의(19:30~21:00)와 소그룹모임(21:00~21:30)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과정 가운데에는 1박 2일 수련회와 국내 이주민선교현장 탐방이 포함되어 있다.

강사는 이시영 장로(시니어선교한국실행위원, 전 대표), 최철희 선교사(시니어선교한국 대표), 강동진 목사(보은예수마을), 허종학 장로(시니어선교한국 실행위원), 하종업교수(숭실대학교), 최혜숙 선교사(이모작선교네트워크), 전철한 선교사(한국외국인선교회 대표), 느헤미야 선교사(시니어선교한국훈련원장), 정송현 선교사(시니어선교한국실행위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니어선교학교의 대상이 되는 시니어는 40세 이상의 모든 중장년을 포함하며, 선교에 관심이 있거나 시니어 선교사로 헌신하고자 하는 시니어, 교회에서 국내·해외 선교부서를 섬기는 시니어, 인생 후반기를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게 보내고자 하는 크리스천 시니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시니어선교학교는 한 기수에 평균 40명 정도가 참여해왔으며, 지금까지 5~600명 정도의 시니어가 과정을 수료하고 국내외 선교현장에서 땀 흘리고 있다. 직전인 제15기 시니어선교학교는 방배동 백석교회에서 개최된바 있다. 수강비는 3만원(수련회 참가비는 별도)이며, 교회에서 1만5천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문의는 주님의교회 윤경수 목사(010.9407.3709)

함께함



2018년 시니어선교학교 수련회 나눔 시간(2018. 10. 26). 코로나19를 맞아 개최되는 이번 시니어선교학교는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2019년 시니어선교학교 수련회 양계장 답사(2019. 11. 1).

초청의 글

인생의 후반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시니어세대는 한국교회의 전성기와 함께 걸어온 세대이다. 전도의 세대이며, 기도의 세대이며, 교회 부흥의 주역이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산업화에 따른 치열한 경쟁 가운데 열심을 다해 달려온 세대이다. 불가능에 도전하며, 어려움을 돌파하면서 숨가쁘게 살아온 세대이다. 그래서인가, 시니어 세대들에게는 아직도 젊은이들 못지 않은 에너지와 열정이 남아 있다.



최철희 선교사 (시니어선교한국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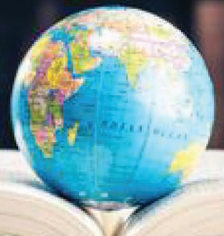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있는 이 귀한 시니어 자원들을 마지막 추수 현장에서 사용하고 싶어 하신다. 젊은 시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눈물 흘리며 선교에 헌신했던 사람들도 일어나고, 지금까지는 개인적인 삶에 집중하여 살았지만, 인생의 후반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 받기 원하는 이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말씀에 있듯이 이들은 어쩌면 해질 무렵에 부름 받은 포도원의 품꾼들과도 같다. 포도원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이들에게 그리 많은 일을 기대하시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원한다. 이것은 마지못해 하는 의무나 책임이 아니라 시니어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선물이며 특권이다. 시니어들이여, 이 부르심에 응답하자!

최철희 선교사 / 시니어선교한국 대표

Senior Mission School

2021 상반기

온라인
시니어선교학교

일시 2021. 4. 20(화) ~ 6. 15(화) 11강. 매주 화요일 오후 7시30분~9시30분

장소 온라인 비대면 강의: ZOOM 화상회의 / 조모임: 각 조별 화상회의

주	날 짜	강 의 제 목	강 사	
1	4/20(화)	한국 시니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역사적 사명 시니어선교한국 소개 & 오리엔테이션	이시영 장로 느헤미야 선교사	前 UN대사, 시니어선교한국 대표 시니어선교한국 훈련원장
2	4/27	코로나시대와 세계선교	조용중 선교사	글로벌호프 대표
3	5/4	그리스도인의 후반전 삶과 선교	최철희 선교사	시니어선교한국 대표
4	5/11	기독교 영성과 선교	김영희 목사	GMS영예선교사
5	5/14(금) 저녁 5/15(토) 오전	Online 수련회	느헤미야 선교사 강동진 목사	시니어선교한국 훈련원장 보나눔, 시니어선교한국 자문위원
6	5/18	타문화에 대한 선교적 접근	허인석 선교사	네팔 선교사
7	5/25	북한선교 -1 북한선교 -2	하종업 교수 임천국 선교사	숭실대학교 통일소망선교회
8	6/1	다음세대선교 -1 다음세대선교 -2	허종학 장로	4/14WINDOW 한국연한 사무총장
9	6/5(토)	국내이주민선교 (Online 현장탐방)	전철한 선교사 외	한국외국인선교회 대표
10	6/8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선교	최혜숙 선교사	前 WEC선교회 한국대표
11	6/15	선교사 간증 -1 선교사 간증 -2 수료식	박용부 선교사 정송현 선교사	前 서남아시아 S국 선교사 前 우즈베키스탄 선교사

등록문의 윤경수 목사 T. 010-9407-3709 E. soo4you@naver.com

수강비 3만원 중 개인부담 15,000원
입금계좌: SC제일은행 204-20-112255 (예금주: 주님의교회)

smk 시니어선교한국

가족공모, “나의 주님의교회” 마감

지난 2021년 3월 14일부터 3월 27일까지 주님의교회에서 공모한 “나의 주님의교회”가 마감되었다. 그동안 그림, 사진, 동영상, 시, 수필, 찬양, 만들기, 도예, 캘리그래피까지 80여 편에 이르는 다양한 장르의 작품이 응모했다.

이 공모전은 팬데믹으로 인해 전혀 새로운 비대면 상황을 맞아 지난 1년의 시간을 보낸 주님의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몸 된 교회를 통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나눈 소중한 꿈들을 기억하며 다시 한 번 가

죽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응모된 작품들은 4월 4일부터 10일까지 교회 로비에 전시되어 교인의 스티커 심사를 받는다. 4월 11일 공모한 작품 가운데 최우수작품 1명을 선정, 주님의교회상이 수여되며, 유아숲·유소년숲·청소년숲·청년숲·장년숲 별로 각각 장로회상·안수집사회상·권사회상·여선교회상·남선교회상이 수여되고, 참가자 전체에게 참가상이 수여될 예정이다.

합계합계

구분	그림	사진	동영상	시	수필 / 일기	찬양	만들기 / 도예	캘리그래피	계
유아숲	4		1				2		7
유소년숲	32	1	2	1	1		7		44
청소년숲	1		1		1		1		4
청년숲		1	1	1	2			1	6
장년		3	3	4	4	1	4	2	21
계	37	5	8	6	8	1	14	3	82

(3월 30일 기준)

부활절 특집 | 미술팀

스토리가 있는 절기 무대 장식

종려주일, 성금요일, 부활주일 맞아 새단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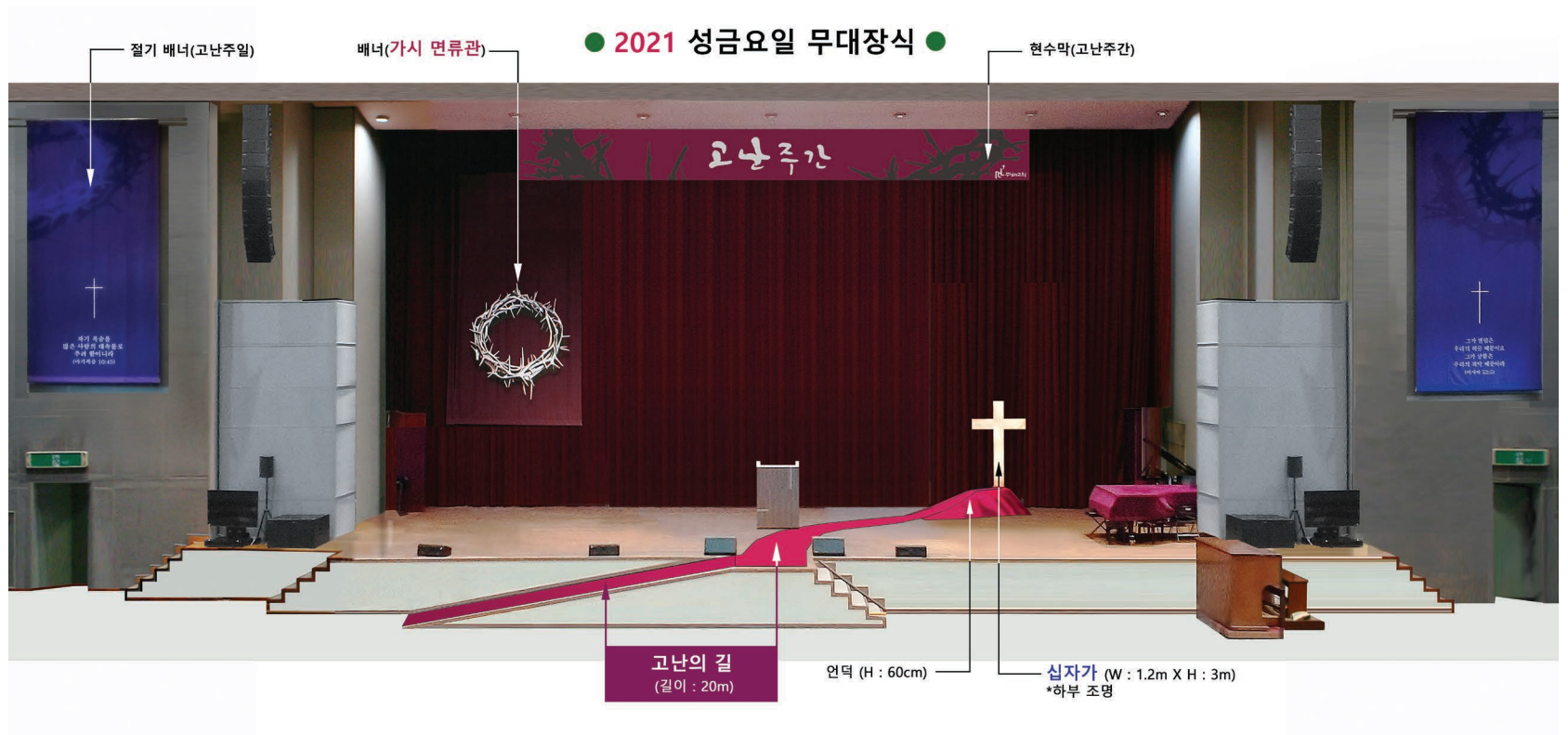
2021년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맞아 주님의교회 예배부에 소속된 미술 팀은 3건에 걸쳐 시리즈 무대 장식을 제작하였다. 무대 장식은 신약에 기초하여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에 예수님께서서 경험하신 대표적 사건을 “길”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 **종려주일** (3월 28일) : “**환희와 경배의 길**”
- **성금요일** (4월 2일) : “**고난의 길**”
- **부활주일** (4월 4일) : “**영광의 길**”

이 3개의 길은 무대 아래에서 시작하여 무대 위에 설치된 예루살렘 성 (종려주일), 골고다의 십자가(성금요일), 부활의 십자가(부활주일)에 이어지도록 흰색(환희와 경배의 길 그리고 영광의 길)과 붉은색(고난의 길)의 천으로 만들어졌다. 무대 아래에 있는 성도들이 주님께서 걸으신 고난과 영광의 길을 함께 걸어가자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였다. 무대 위의 커튼에는 사건에 따라 종려나무 잎, 가시 면류관, 백합꽃을 상징하는 대형 배너(3m x 6m)를 설치하여 “주님이 가신 길”의 의미를 시각적으로 전달하고자 하였다. 아래 사진은 종려주일(환희와 경배의 길), 성금요일(고난의 길), 부활주일(영광의 길)의 무대 장식 디자인을 차례로 나타낸 것이다.



온라인 예배에서도 부활의 메시지 생생하게 전달하려고 노력
기존 소품 활용하고 재활용 가능하도록 재료 선택



작년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온전히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서 대예배실에 설치하는 절기 무대 장식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도 부활의 메시지를 생생하게 전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스토리가 있는 절기 무대 장식”을 주제로 삼아 성경에 나오는 3개의 부활절 관련 사건을 연속적인 무대 장식으로 표출하기로 하였다.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어려운 사역을 위하여 미술팀의 모든 팀원은 자료검색, 아이디어 구상, 디자인 등과 관련하여 밀도 있는 연석회의를 함께 하며 3건의 무대 장식을 기획하였다. 기획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연속적인 3건의 무대 장식을 일관된 개념과 더불어 차별화시키는 일이었고, 앞의 무대를 간단하게 설치하고 철거하여, 다음 무대로 신속하게 전환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 아울러 무대 장식에 사

용된 재료는 다른 절기에도 재활용될 수 있도록 재료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게 여겼다. 아울러 교회에 있는 가용 소품과 재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예산의 낭비를 줄일 뿐 아니라 폐기물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모처럼 미술팀의 모든 팀원이 총출동하여, 한 달 남짓 기간을 전념으로 매달림으로써 시간에 맞추어 무대 장식을 설치할 수 있었다. 작년 이맘때 갑자기 닥친 코로나19로 인하여 부활절 절기 무대 장식을 못 하였고 올해는 주님의 은혜로 집중력을 더하여 무대 장식에 매진할 수 있었다.

“스토리가 있는 절기 무대 장식”을 통하여 주님의교회 성도 모두가 하나같이 주님께서 주신 부활의 기쁨을 눈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온전히 누리시기를 간구한다.

미술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세움학당 제1기 수료

다음세대를 세우는 '주님의교회 세움학당[마땅할 당]' 1기가 3월 27일(토)에 종강하였습니다. 세움학당[마땅할 당]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잠 22:6)는 말씀을 따라 다음세대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전수함으로 가정과 교회학교, 다음세대를 주님의교회의 신앙의 주체로 세우기 위한 과정입니다.

2020년 4월 18일 장순애 교수님의 "기독교 교육 바로 알기" 강의로 시작된 세움학당은 2021년 3월 27일 김화수 담임목사님의 "아름다운 여행으로의 초대(콜링)"을 마지막 강의로 총 18강의 대장정을 마쳤습니다. 세움학당은 당초 상반기 4월 18일~7월 11일, 하반기 10월 17일~12월 19일, 총 20주 과정으로 예정되어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코로나 19로 인한 정부 방역 방침에 따라 현장 모임이 어려워졌고, 11월 14일부터 온라인 ZOOM을 통해 하반기 잔여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코로나도 세움학당의 열기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20대에서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에도 불구하고 낯선 ZOOM을 통해 진행되는 온라인 세움학당 강

의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셨습니다. 어려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1기 신청자 183명 중 131명의 성도님들이 세움학당 1기를 수료하셨습니다.

다음세대를 키우는 일은 기존 세대의 시대적 소명입니다. 이 중요한 일의 첫 걸음으로 세움학당 1기가 믿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다음세대를 위한 이 작은 씨앗은 앞으로 계속될 세움학당을 통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세움학당 2기가 4월 10일(토)부터 진행됩니다. 다음세대와 함께 주님의교회 공동체를 지어가는 이 일에 적극적인 참여와 기도로 함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예림 전도사



수료 소감

우물 안 개구리 밖으로 나온 시간

안녕하세요? 저는 소년1부에서 교사로 섬기고 있는 이세호입니다. 사실 그 동안 교회의 규모에 비해 우리들의 미래인 아이들을 이끌어줄 교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아쉬웠었던 터라 세움학당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무척 반가웠고 기대도 컸지만, 한편으로는 오랜 기간 현장에서 있었던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첫 강의에서 바로 저의 그런 생각이 엄청난 교만이었음을 깨닫게 되었고, 다양한 주제와 또 그 주제만큼 다양하고 훌륭한 강사님들의 강의를 들어보니 제가 정말 우물안 개구리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절반 가까이 된다는 사실은 정말로 충격이었고 그로 인해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정말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아이들에 비해 교사가 너무 적어서(소년1부 기준 담임교사 1명당 학생이 9~10명) 불평을 해왔었는데 이번 세움학당을 통해 불평을 할 것이 아니라 교사분들을 많이 보내달라고 기도하지 않은 제 자신에 대해서 많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세움학당 1기는 첫 시작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무사히 잘 마칠 수 있어서 정말 그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특히 중간에 상황의 악화로 인해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게 되어 막막하던 그 때 ZOOM으로 모인다고 했을 때 정말 깜짝 놀랐

습니다. 100명이 넘는 사람이 ZOOM으로 모일 때 문제는 없을지 걱정했는데 끊임없이 원활하게 잘 진행되어 정말 놀랍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교역자분들께서 얼마나 많은 기도와 수고를 하셨을지 감히 상상도 되지 않습니다.

커리큘럼짜고~ 거기에 맞는 훌륭한 강사님들 초빙하고 중간 중간 일정 조정하고, ZOOM으로 문제없이 진행되도록 준비하고... 특히 매 강의 시작 전 이은미 전도사님의 그 온화한 미소가 참 은혜로웠고 저도 그런 은혜로운 인상을 사람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남기고 싶다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황금같은 저녁시간 동안 함께 강의를 들은 1기분들 모두 존경합니다.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부서 방문을 통하여 여러 부서의 실제 모습을 보지 못한 것이었는데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사라져서 추후에라도 원하는 분들에게 그런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움과 위기를 놀라운 은혜로 바꾸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아이들을 더 사랑하고 기도하는 제가 되겠습니다.

이세호 집사 / 소년1부 교사



수료 소감

예수님 보여주신 가장 훌륭한 교사의 본을 따라

‘엥?? 20주?? 뭐가 이리 길어? 점수제?? 출결 및 과제?? 에고 힘들겠네... ㅠㅠ’
전도사님께서 조심스레 전해주시는 세움학당 신청서를 보고 망설이고 있는데 부장권사님께서 하시는 말씀... “자~ 힘들겠지만 어차피 한번은 수료해야 한다니까 우리 전도사님 기를 살려드리기 위해서라도 1기에 우리 부서 선생님들 많이 많이 신청합시다!”

그렇게 신청을 하고 개강을 기다리던 중 코로나로 인한 정부의 집회금지로 주일예배조차 교회에서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3월 21일로 예정되어있던 개강은 기약 없이 연기되고 이러다 올해는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쯤 4월 18일 세움학당이 드디어 개강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솔직한 마음은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모여도 되나하고 우려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드디어 개강날!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마스크를 쓰고 두 의자에 한 명씩인 생소한 자리 배치에 주변을 둘러봐도 마스크로 가린 얼굴들이 낯설어 아는 얼굴도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두 달만에 교회당에 모인 것만으로도 살짝 들뜨고 설레었던 첫 수업이었습니다. 장순애 교수님의 ‘기독교교육’바로 알기로 시작된 상반기 수업에는 교사 세움의 기본과정으로 무엇이 기독교교육인가,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성경과 공과는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씌어졌는가, 교사의 성경적 자기 관리 방법, 반 목회과 교회교육행정, 학습지도, 교사의 상담과 지도력, 교사의 영성과 각 부서의 운영에 대해 각 분야의 일타강사님들을 모시고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며 상반기가 채 끝나기 전에 다시 수업은 연기가 되고 그렇게 한해가 지나고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결국에는 현장수업이 불가능해지며 하반기 수업은 ZOOM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과연 온라인으로 수업이 잘 진행

될 수 있을까 하는 염려도 있었지만 개인적으로는 강사님의 얼굴도 잘 볼 수 있고 집중도 잘되서 좋았습니다.

상반기 수업은 교사로서 기본과정으로 예배, 공과, 아이들 상담과 각 부서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배웠다면 하반기에는 심화과정으로 교사의 가르침과 배움, 사명과 섬김, 비전과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교사의 영성에 대해서 배우며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영성을 점검해보는 뜻깊은 과정이었습니다. 드디어 3월 27일 마지막 수업! 세계적인 명강사(^^)이신 담임목사님의 소명감(부르심의 Calling)과 사명감에 대한 멋진 강의는 다시 한번 바른 신앙교사의 중요성을 되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장장 11개월에 걸친 세움학당의 1기가 드디어 종강을 하고 수료를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 수고해주신 담임목사님과 이은미 전도사님, 강사로 세움받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 그보다 우선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세밀하게 계획하시고 간섭하신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에 감사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는 것이 많다고 말로만 하는 사람은 교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몸소 삶으로 가르치고 보여주신 가장 훌륭한 교사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처럼 교육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의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는 calling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고 귀한 교육을 통해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되고 바른 신앙교사로 ‘세움’받는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이 영적으로 회복되고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들로 성장해나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김정은 집사

수료 소감

세움 학당을 수료하며

청장년이 되어 유학을 하면서 교회 공동체에 속하고, 성경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영혼으로서, 주일 학교를 경험하고 이리 좋은 하나님 말씀을 더 일찍 배웠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마음이 한 칸에 자리 잡았고, 그 아쉬움은 자녀가 어릴 때부터 주일 학교에 열심히 참여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는 초보적 열정으로 이어졌다. 말씀을 가르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말씀의 감동에 힘입은, 지금 돌이켜보면 무모하기도 했던 용기로, 아이들을 말씀 위에 세우고자 주일학교 중등부 교사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짧은 공과 공부 시간에 나누기 위해 애썼다. 공과 공부보다는 놀기 좋아하는 학생들과 씨름하면서 나뭇의 열심을 다하여 짧지만 기억에 남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 고민했다. 그 예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인어공주 이야기에 비유하여 설명한 적도 있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에리얼 공주를 구하기 위하여 자신의 능력을 모두 포기하고 공주를 대신하여 벌레 같은 모양으로 변화했던 트라이트 왕의 마음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표현하고 온전히 전달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했던 설명에 매주 아쉬움이 남는 시절이었다.

처음에 세움 학당 프로그램의 수강 신청을 하면서 이러한 부족함이 조금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지도 방법이나 프로그램 등을 배울 수 있을 것이라는 처음의 기대와는 달리 강사 선생님들의 강의는 하나님과 나와 직접적인 관계를 다루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리고 강사 선생님들이 강의 도중에 닮아서는 안 될 교사 행동을 예를 들어 설명하시는데 거의 대부분이 나를 설명하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워져만 갔지만 그 시간 또한 인내하고 묵묵히 참여하였다. 그러던 중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현장 및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면서 강사 선생님들을 통해 많은 은혜와 깨달음을 얻어갔고, 무엇보다 강사 선생님들의 반복하여 강조한 것처럼 아이들을 이해하는 자세를 바꾸어야 한다는 것에서 그동안 말씀을 전달하고자 했던 나의 모습을 다시 보게 되었다. 즉, 내 판단과 기준에 의해 아이들을 판단하기보다는 아이들 입장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시는 관점에서 생각하고 아이들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 교사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움 학당을 통해 배우게 된 많은 은혜 중 세 가지를 요약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 아이들의 변화를 만들어 내야 한다는 나의 생각이 하나님이 하신다로 바뀌었다. 성경을 읽을 때 주어는 항상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강사 선생님의 이야기를 통하여 삶의 주어를 나에서 하나님으로 옮길 수 있었고 아이들의 믿음도 내가 가르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손수 동행하심으로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깨우쳐 주셨다. 두 번째, 최고의 교육 자료는 바로 말씀이라는 것이다. 교육을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는 소재나 이야기는 너무나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만이 주일 학교와 다음세대를 세우는 교육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강사님 말씀에 공감하였다. 성경 밖에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는 것은 잠깐 아이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직접 역사하셔서 아이들 마음에 말씀이 뿌리내려 튼튼하게 자리 잡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 그 자체를 가르쳐야 한다. 내 자신이 먼저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나가면서 말씀을 풀어 갈 수 있을 때, 더 크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배우는 기회가 되었다.

셋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비쳐지는 삶이라는 것이다. 짧게 만나는 학생들에게도 중요한 교사의 삶이기도 하지만 특히 가족 안에서의 부모로서, 교사로서 학생들이나 우리 아이들이 보고 배우는 교사로서 나의 믿음은 그들의 눈에 비춰지는 나의 삶인 것이다. 즉, 아이들이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의 본은 교사의 삶 그 자체이다. 말씀에 비추어 나의 삶을 돌이키고, 주님이 살리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2021년 주님의교회 표어인 ‘가족이 신앙교사입니다’를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생각되었다.

때에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듯,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와 말씀을 잘 가르치시는 선생님을 때에 맞추어 보내주셨던 주님이 이번에는 세움 학당을 통해 제게 필요한 선생님들을 만나게 해주셨다. 세움학당의 과정을 통해 부족한 저를 배움의 자리로 초대해주시고 제게 꼭 필요한 것을 깨우쳐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용수 장로

사역소개_이렇게 섬깁니다
소그룹분과

뒤에서 묵묵히 섬기는 일

작년 1월부터 확산된 코로나19로 가장 어려운 것은 주님의교회 자라있던 겨자씨 모임이 정체되었다는 것입니다. 온라인을 통해 겨우 명맥을 잇고 있거나 함께 모여 정겹게 교제를 나누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소그룹분과는 교회의 텃밭이요 기초가 되는 사역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소그룹 운영을 어떻게 이끌고 있는지 허준 목사에게 서면 인터뷰를 청했습니다. 소그룹 운영의 모든 것, 허준 목사가 밝힙니다!

함줄함울

현재 소그룹분과 활동에 어떤 분들이 참여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주님의교회 소그룹분과 안에는 소그룹지원부와 은사사역부 2개의 부서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2021년 분과위원장은 김유호 장로님이시고, 소그룹지원부장은 김은희 권사님, 은사사역부장은 류혜경 권사님께서 계속해서 섬겨주시고 있습니다.

주님의교회 소그룹분과에서 하시는 사역 내용의 방향이나 개념은 어떤 것일까요?

소그룹분과 위원회와 부서의 크기는 매우 작지만 각각 주님의교회의 전체 목양 및 사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그룹지원부는 기본적으로 전체 교구와 겨자씨를 통한 목양사역을 뒤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즉 각 교구 목사와 교구 리더들, 겨자씨 인도자 350명 가량이 함께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은사사역부는 모든 성도님들이 자신의 은사를 개발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모든 사역부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두 부서 모두 전면이 아닌 뒤에서 묵묵히 섬기는 부서입니다.

소그룹분과에서 하시는 활동 내용을 되도록 꼼꼼히 말씀해 주세요.

소그룹지원부의 주요 사역을 살펴보면, 매년 신임서리집사교육 지원, 연 2회 겨자씨인도자수련회 지원, 학기 중 매주 겨자씨인도자교육 지원, 교구연합수요기도회 지원, 교구 특별행사(교구별 발표회 혹은 교구수련회) 지원, 심방물품 관리, 그 외 교구의 목양사역과 관련된 전반적인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코로나 상황으로 많은 사역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사역을 하는 데에는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은사사역부는 매월 사역부서 봉사자 모임을 하여 해당 부서장과 연계를 하고, 가을(11월)에 사역박람회를 개최하여, 모든 성도들에게 교회의 전체 부서를 소개하고 각자 은사에 따라 사역을 지원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기본적인 봉사자 모집이 어려운 관계로 2021년부터 ‘다시 춤추기 시작할 때까지’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도서서점부를 만나서 인터뷰하였고 4월 중에 두 번째 부서에 대한 기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그룹분과에 참여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는지요.

이전에는 교구 목사로서 소그룹분과 사역에 연계가 되어 있었지만 소그룹분과의 담당교역자로 위원회를 직접 맡아서 사역하게 된 것은 2020년부터입니다.

소그룹분과 활동에서 목사님께서 주로 어떤 역할을 맡으시는지요?

소그룹의 목양사역과 부서의 은사사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서에 속한 가족들과 함께 돕는 역할을 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교회 이전에 소그룹분과에 대한 관심이나 경험이 있으셨는지요?

이전에 6년 동안 몸담았던 교회에서도 목장사역의 책임을 맡은 바 있습



니다. 장년목자교육을 통해 전체 목자들을 대상으로 한 양육을 맡아 담당하였습니다. 그 때의 사역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 안의 작은 교회로서의 함줄함울하는 겨자씨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은사사역은 주님의교회에 와서 처음으로 담당하게 되었지만 이 사역이 전체 사역의 윤활류와 같이 교회 안에 꼭 필요한 영역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소그룹분과 활동 가운데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다면?

글쎄요, 최근에 은사사역으로 ‘다시 춤추기 시작할 때까지’ 프로젝트를 1편을 제작할 때가 떠오릅니다. 류혜경 부장님께서 도서서점부 인터뷰를 하시는데 너무나 능숙하게 진행하셔서 놀랐습니다. 앞으로 방송국에서 리포터를 하셔도 잘 할 것 같았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소그룹분과 활동이 어떻게 중요하지 말씀해 주세요.

이미 언급한대로 코로나19의 상황으로 인해서 많은 부분이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사역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소그룹분과도 현재의 상황에 맞추어 온라인으로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빨리 상황이 해결되어 맡겨주신 본래의 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회에 교회 공동체에 하시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든 부서가 힘든 상황이지만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하게 맡은 일을 감당하는 모습이 매우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유진 피터슨의 말처럼 ‘한 방향을 향한 오래되고 꾸준한 순종’을 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위로와 평강을 빕니다. 소그룹분과에 속해 있는 모든 지체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줄함울

목회 칼럼

나의 사랑하는 책을 필사하며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하여 새해 첫날부터 시작했던 민수기 성경필사가 3월 마지막 날을 끝으로 올해 1차 필사 기간을 끝냈습니다. 코로나 19의 재확산으로 인해 매우 속상하고 답답했던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함으로써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발견하려는 기회로 삼아, 선용하고 세월을 아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성경을 정독으로 5번 이상 읽는 효과를 얻고, 한 문장 한 단어의 뜻을 깊이 생각해 보는 복된 시간을 누리셨으리라 믿습니다. 또한 온 가족과 함께 필사를 나누셨던 성도님들께서는, “양식 있는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지식을 남기고, 지혜로운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신앙을 남긴다.”라는 탈무드의 교훈을 실천하며,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서로 나누었으리라 짐작해 봅니다.

저 역시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맡기신 용진이와 성경필사를 함께 하면서, 어머니와 함께 가정예배를 드리며 함께 성경을 읽던, 아련하지만 몹시 그리운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무척 즐겨 부르던, 새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을 떠올리며 과거로 되돌아가는 꿈을 꾸었습니다. 곱고 따스한 어머니 품에 여동생과 함께 안기어 놀랍고 신기한 성경의 이야기를 듣던 내 옛적 그리운 기억이 찬송가에 고스란히 배어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의 영어 원곡의 제목은 “My Mother’s Bible (내 어머니의 성경책)”입니다. 이 찬송가는 미국 복음 전도자인 밀란 버트렌드 윌리엄스 (Milan Bertrand Williams, 1860-1941)가 1893년에 지은 찬송가입니다. 이 찬송가는 지금의 미국교회보다 한국교회에서 훨씬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시적으로 탁월한 번역의 힘이 더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많은 성도님들이 1절에 “비록 헤어졌으나”라는 가사를 오해하고 있는데, 이는 사별한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쓰시던 낡고 오래된(worn and faded) 어머니가 쓰시던 성경책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 찬송가를 통해, 어렸을 적에 어머니 무릎 옆에 서서, 어머니의 안수를 받으며, 온유하고 낮은 어머니의 목소리를 통해 들었던 낡고 오래된 “나의 사랑하는 책 성경”을 떠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은 부모를 통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영원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 간증하고 있습니다. (딤후 3:15)



2절은 사탄의 계략에 저항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기 위해 구약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어머니의 소중한 성경책을 이야기합니다. 저자는 2절을 “통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엡 6:11), 즉 성경의 가르침으로 항상 깨어 있으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3절에서는 어떻게 예수님의 삶과 죽음이 우리를 위하여 신약 성경에 쓰여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3절의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Then she read of Jesus’ love, [예수 세상 계실 때]

직역) 그리고 어머니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 읽어주셨습니다.

As He blest the children dear, [많은 고생하시고]

직역) 예수님이 사랑하는 어린이들을 축복하심으로,

How He suffered, bled and died upon the tree,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

직역) 어떻게 십자가 위에서 고난 겪으시고, 피 흘리시고, 돌아가셨는지,

Of His heavy load of care, [어머님이 읽으며]

직역) 예수님의 보살핌의 무게가 얼마나 컸는지!

Then she dried my flowing tears [눈물 많이 흘린 것]

직역) 이윽고 어머니는 내 흐르는 눈물을 닦으시며,

With her kisses as she said it was for me.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직역) 내게 입맞춤을 해주시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모두 나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자는 마지막 4절 통해 성경으로부터 배운 가르침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가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소중하고 오래된 성경책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하게끔 아름답게 가꾸어준다고 말했습니다. (딤후 3:16-17) 성경의 가르침을 따름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영원히 주님 곁에 거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요일 2:17).

저자는 원곡의 후렴을 통해 이 찬송가가 전달하려는 결론을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천국에 이르는 좁은 길을 내가 걸어감으로, 어머니의 눈물이 묻어 내가 더 아끼는 복된 책, 소중한 책이 날마다 더 달콤하게 들려옵니다.”

저자인 Williams 이 찬송을 지었을 당시에는 신앙심을 자극하여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찬송곡이 인기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찬송이 넓은 바다를 건너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더 큰 사랑을 받는 이유는 단지, 이러한 지난날 어려웠던 시절에도 신앙생활을 고수했던 어머니를 떠오르게 하는 향수 때문만이 아닐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과거와 같이, 자그마한 선물과 간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교회의 문턱을 쉽게 드나들던 아이들이 넘쳐났던 지난 시절이 그리운 것은 혹시 아닌지 잠시 생각해 봅니다.

얼마 전에 부모님을 찾아뵙고 우연히 우리 주님의교회에서 시작한 성경필사 책을 보여드렸더니, 원고지에 쓰기 편하게 잘 정돈되어 제작된 것에 놀라워하시며, “주님의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은 참 성실하시구나!”라고 칭찬하시던 모습도 생각납니다. 저와 사랑하는 주님의교회 성도님들 모두 저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님으로부터 배웠기에, 혹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하심으로 만난 다른 신앙교사로부터 배운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라는 아름다운 고백이 넘치는 계절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이진희 목사



더딤, 하나님의 시간

“이런 걸 팔면 어떻게 해?! 전부 다 엉망이네...?”

그 사람이 주방 저편에 서서 꿈시렁꿈시렁 거리며 여기저기 상처 투성이인 총각무를 다듬으며 투덜댄다. 오랜 세월 직장인의 길을 마감하고 오롯이 전업주부의 전선에 합류한 것은 불과 몇 년 전의 일이었다. 가사와 직장 생활 둘 다를 동시에 잘 해내야 했기에 주방에 전념하기엔 어려움이 있어 항상 일정한 스탠스를 유지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던 사람이 최근 김치 담기에 몰입하고 있다. 김치의 종류를 하나 둘 늘려 가며 열심을 내고 있다.

신혼 초 직장 상사의 집에 초대받아 간 적이 있었다. 여수가 고향이고 선주의 아들로 비교적 여유 있는 집에서 자라난 그였다. 각종 잡 지식에 능했고 어촌 출신답게 해산물의 종류와 그 선도에 민감하였다. 자라온 환경이 주는 여유로움에서였는지는 몰라도 철 따라 지역 따라, 그 때 그때 꼭 먹어야만 하는 음식이 있는 사람이었다. 풍납동 A 종합병원 맞은 편에 있는 아파트에 갔다. 저녁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 계절과 음식에 대한 확고한 사상과 경륜을 한바탕 풀어 놓았다. 별 관심도 없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도 못하는 요사한 이론에 머리는 복잡했지만 팀장인 그의 눈에 나의 눈을 맞추며 야릇한 미소로 답할 수 밖에 없었다. ‘자기는 먹기만 하고 하나도 만들지도 못하면서 말은...’ 서설이 길어질수록 무채색 불만의 농도는 점점 더 짙어져 갔지만 별 도리가 없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는데, 마침내 저녁 상이 나왔다. 태어나 처음 보는 민어 매운탕, 나로서는 선도를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놈이 눈 앞에 배를 깔고 누워 있었다. 놈이 한참이나 그렇게 상 위에서 끓고 있는 동안에도 그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사회적으로 강제된 위계로 인한 억지 미소도 한계에 다다르기 시작했다. 힘겹게 올려진 입고리가 힘에 부쳐 처질 무렵 그 장구한 서사는 마침내 마침표를 찍었다. 비로소 민어 매운탕을 허끝에서 만날 수 있었다.

그런데... 맛이었다.

처음 먹어보는 황홀한 맛에 입고리는 아까보다 훨씬 더 높이 올라갔다. 모든 음식에 차별이 없어 특별히 좋아하고 싫어하는 음식이 별로 없었는데, 이 민어 매운탕의 잔향이 깊고 오래도록 남아 있었다. 나중에 한 번 더 먹고 싶어졌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서 들뜬 기분에 성급한 제안을 했다.

“민어 매운탕 진짜 맛있었지, 우리도 나중에 집에서 한 번 해 보자.”

순간의 멈칫, 잠깐의 정적, 그리고 한 동안의 어색한 침묵. 그 사람이 천천히 내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

“하긴 뭘 해 봐 그냥 사 먹으면 되지...”

그 후 지난 30년 동안 ‘민어 매운탕’은 암묵적 금기어가 되어 우리 집 검색창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던데 세상에 예외 없는 법칙이 없긴 없나보다. 세월의 위대한 힘인가, 그 사람이 변했다. 일과 가사를 병행해야만 했기에 새로운 음식 만드는 것에 도무지 관심을 가질 수 없었던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이 이것 저것 음식을 만들기 시작하더니 레퍼토리를 늘려간다. 몇 가지 요리를 섭렵하고 밑반찬을 만든다. 그러더니, 열무김치를 시작으로 김치 담기에 도전하기에 이르렀다. 여기저기서 정보를 취득 후 작업에 들어가는 데, 워낙 성격이 철저한지라 준비 과정이 만만치 않다. 요리는 손맛이라는 고전적이고 개인적인 철학을 가지고 있던 나는, 요리의 전체 흐름과 개념을 잡은 후,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현장에 있는 재료 위주로 그날

상황에 맞게 맛을 가감 변형한다. 하지만 음식 만드는 것에 관한 그 사람의 세계관은 나와는 좀 달라 자신이 검증한 정보와 지식에 한 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았다. 재료의 종류는 물론이고 용량까지도 정확히 일치해야만 했다. 공학을 전공한 나는 직관과 감각으로 접근하는데, 문학을 전공한 그 사람은 문과 출신이 맞나 싶을 정도로 과학적인 데이터와 숫자에 의존했다. 어쨌든 그렇게 요리에 재미를 붙여 자신의 또 다른 한 영역을 넓혀가며 즐거워하는 그 사람을 보고 있으면 나도 같이 행복해진다. 이론과 실제의 일치, 정밀한 분석과 실증 그리고 완벽한 검증 과정을 거쳐 각종 음식이 그 사람의 손 끝에서 재창조된다. 보통 첫 시식은 내가 한다. 맛이 어떠냐고 묻는다. 내용과 형식은 늘 바뀌어도 그 사람의 물음에 대한 나의 답은 항상 같다.

“대박!!! 정말 맛있어 !!!!” ㅎㅎㅎㅎ...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며 제법 춥다. 청명한 늦가을 어느 금요일 저녁, 달은 초승에서 상현으로 느린 걸음을 옮기며 서서히 자기를 채우고 있다. 어스름한 달빛의 안내를 받으며 겨자씨 모임에 간다. 벌써 이렇게 깜깜해졌다. 빛과 어둠의 영역 싸움에서 어둠이 자신의 영역을 점점 넓혀가는 을씨년스러운 계절을 지나고 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2 장.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때의 일이다. 시내산에서의 하나님과 모세, 산 아래에서 모세를 기다리고 있던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 이 때 벌어진 일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생각을 나눈다. 시내산으로 올라간 모세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의 부재와 미래의 불확실성에 불안해한다. 확실한 무언가가 필요했던 그들은 아론에게 금송아지를 만들게하곤 그것을 구원자로 섬긴다. 이에 분노하시는 하나님. ‘이제 그들은 내 백성이 아니라’라며 거리를 두신다. ‘(모세)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다’(출 32:7)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모세의 사람들이라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신다. “다 너의 백성이니 네가 알아서 잘 해봐 !!”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입혀졌다. ‘네 백성’이라 말하시는 하나님과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말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모세. 이스라엘 민족을 놓고 벌이는 하나님과 모세의 신경전은 팽팽한 긴장으로 이어진다.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각자의 삶과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조금 깊이 생각해 본다. 그리고 거기서 얻은 깨달음을 같이 나눈다. 마음을 열고 쉽게 다가가는 데 도움을 주고자 교회에서 준비한 나눔에 대한 질문이 있었지만, 때때로 질문의 요지가 정교하지 못하고 내용이 너무 두루뭉술하여 나름의 이해를 바탕으로 각 문제를 재구성한 후 물음의 의도가 무엇이었을까 스스로 생각해야 했다. 그렇게 한동안 있었는데 정작 나의 시선이 다른 곳을 향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움이 더딤을 보고’(출 32:1)라는 구절이 나의 눈과 생각을 사로잡았다. ‘더딤’이라는 말을 몇 번이고 되새겨 보았다. 시내산에서의 40 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홍해를 건너 여기까지 왔다. 그때 그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과 언약을 했던 사람들에게도 (출 24:7), 모세 부재 40 일의 시간은 견디기 힘든, 어찌할 수 없는 불안의 시간이었나 보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는다 하였지만 실상은 눈 앞의 모세를 더 믿고 의지하며 따라왔나 보다. 밖에서 제 3자로 사건의 전말을 알고 있는 나는 그냥 안타까울 뿐이었다. 그냥 믿고 좀 더 기다려보지 그랬나 하며 말이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참 진리를 믿으며 말씀대로 살아내고자 애쓰는 사람들을 ‘믿는 자’라고 한다지만, 앎과 행동을 일치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은가보다. 돌아보면 나 자신도 예외는 아니어

더딤은 변화의 시간이었고 성숙의 시간이었나 보다. 그 지난한 과정을 기다리는 것이 신뢰이고 믿음인가 보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성장과 성숙이 있나 보다. 당시에는 앞이 캄캄하고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것 없어 보여 무척 힘들었는데,
더디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나 보다. 더딘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한다.

서 무언가 눈에 보이고 잡히는 것이 있어야 비로소 안심했고 눈에 보여지는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며 지내왔던 것 같았다.

이런 저런 생각을 하다, ‘하나님이 전체의 일정과 개요에 대하여 조금만이라도 미리 알려 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하는 엉뚱한 생각을 했다. “모세가 40 일 가량 산에서 나와 있을꺼니 밑에서 탄 짓 하지 말고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어라”라고 미리 언질을 주셨으면 이런 사단도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하며 말이다. 엉뚱한 생각은 사울과 사무엘의 이야기로 확장된다.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 둔 사울, 하나님께 제사를 올리고 전쟁에 나가야 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전투에 임해야 하는데 사무엘은 보이지 않는다. 약속한 날에서 벌써 일 주일이 지나갔다. 블레셋은 기세등등하여 점점 압박해 오고 있고 군사들은 동요하며 이탈하기 시작하는데 사무엘은 언제 올지 알 수 없다. 더 이상 사무엘을 기다릴 수 없었던 사울은 자신의 손으로 직접 제사를 올린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던 일... 결국, 사울은 이 사건으로 하나님으로 부터 버림을 받는다. 계획한 때에 되어져야 될 일이 되어지지 않으니 조급하고 불안해졌나 보다. 초대 왕으로서 왕의 책무에 충실하고자 했는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렸어야 했나 보다. 그렇지만 약속한 시간에 나타나지 않았던 사무엘에게도 개운치만은 않았다. 어찌보면 사울은 직권남용의 죄를 범했고, 사무엘도 직무유기에 해당할 법한 누를 범해 마냥 자유로울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은 사울에게만 뭐라 하신다.

사무엘에 영 찢찢해 하던 중, 쓸데없는 생각을 했다. 사울이 내침을 당하는 과정에서 만약 사무엘이 하나님께 사울을 용서해 달라 빌며 자신을 던졌으면 어떻게 됐을까. 모세는 금송아지 숭배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과 딜을 한다. 비록 그들이 죄를 범하였지만 용서해 달라 요청한다. 그들을 벌하시려면 모세 자기의 이름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달라며 자신을 던진다. (출 32:31-32) 모세의 ‘남자다움’과 ‘보스다움’이 다시 보이는 대목이었다. 출애굽 당시 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셨는지 궁금해 왔었다. 바로왕과 직면해서 담판하는 사람은 결국 아론이었는데 모세를 빼고 그냥 하나님, 아론, 바로왕으로 이어지는 심플하고 명료한 채널을 놔두시고 하나님은 왜 굳이 하나님, 모세, 아론, 그리고 바로로 이어지는 복잡한 프로세스를 선택하셨을까. 소통의 채널이 길어지면 왜곡되기도, 오류가 발생하기도 쉬운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궁금했었는데 이제 그 이유를 좀 알 것도 같았다. 자기 변명과 책임 전가에 급급했던 아론에 비해 모세는 급이 달랐다. 모세는 인간적으로 봐도 대인배였고 큰 보스였다. 쓸데없는 생각은 가속이 붙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향한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의 현현이 더더지자 조급하여 (?) 자기가 이해한 하나님 약속의 때를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여 이스마엘을 낳는다.

그러더니 생각은 다시 나에게로 돌아온다. 나는 어떠한가. 일상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시각으로 보고 적용하고 해석하는 것이 신학적 삶이라 하던데, 나는 신학적으로 살고 있는가. 구원 후 성숙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성화를 기대하며 변화하고자 했는데, 정작 그 변화의 주체를 내가 아닌 타자의 변화로 은근히 기대하며 살아왔던 것은 아닐까. 알팍한 머리로 앞에서는 이해하는 척 했는데 나의 가슴, 손과 발, 나의 생각은 변화되고 있는가 묻는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일들에 대해, 때때로 나의 욕망과 다르게 나타나는 일들에 대해 그곳에서도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다리며 담담히 견디고 있는가. 자신 있게 ‘그렇다’라고 말하는 데 머뭇거린다. 느린 진행, 캄캄한 길, 답답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나도 어찌할 수 없는 조급함과 불안, 짜증이 올라올 때가 있다. (그것도 아주 많이 그리고 자주...) 하나님은 좀 더 기다리고 인내하며 기도하라 하시는데, 그게 잘 안된다.

일주일이 지났다. 저주를 퍼부으며 담그었던 알타리 김치를 꺼내 식탁에

놓았다. 갓 지은 뜨거운 밥과 함께 한 입 물었다. ‘사아~각’하는 기분 좋은 소리와 함께 건강하고 싱싱한 기운이 입 안에 가득 번졌다. 나도 모르게 눈고리가 올라가며 눈이 커졌다. 별 기대하지 않았었는데 정말 맛있었다. 그때는 엉망이었고 여기서 무슨 맛이 나올까 했는데... 시간이 만들어 놓은 변화, 숙성, 성숙이었다.

더딤은 변화의 시간이었고 성숙의 시간이었나 보다. 그 지난한 과정을 기다리는 것이 신뢰이고 믿음인가 보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성장과 성숙이 있나 보다. 당시에는 앞이 캄캄하고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것 없어 보여 무척 힘들었는데, 더디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나 보다. 더딘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한다.

알타리김치와 같이하는 소박한 저녁 밥상, 함께 따라오는 깨달음에 가을 밤이 풍성해진다. 그리고 어찌면 우리 집에서도 곧 민어 매운탕의 부활을 볼 수도 있겠구나 하는 기대에 수줍은 미소가 살포시 입가에 내려앉았다. 30년 만의 부활... ㅎㅎㅎㅎ

이제 제법 쌀쌀한 계절의 끄트머리,
가을이 깊어간다.

김중호 안수집사

부활절 상식

부활절에는 떡을 나누어야 한다

흔히 부활절에 '이스터 에그(Easter egg)'라고 하여 삶은 달걀을 나눈다. 하지만 초대교회 때에는 달걀에 대한 풍습이 존재하지 않았다. 부활절 달걀의 유래로 초기 기독교 선교사들이 튜튼 족의 신화에 나오는 이스터 여신이 달걀에서 탄생한 것을 차용해서 부활절 의식에 접목했던 것에서 기원했다는 설, 중세 십자군 전쟁의 와중에서 부활절 무렵 '하나님의 사랑을 믿읍시다'라고 적은 삶은 달걀을 나눈 한 부인의 예화에서 시작되었다는 설 등이 있지만 정작 성경에는 기록이 없다. 초대교회와 부활에 대한 기록에서 발견되는 것은 '떡'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만났으나 그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누가복음 24:30~31)

이와 같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것은 예수님이 떡을 갖고 축사하신 후 떼어 그들에게 주셔서 눈이 밝아진 후에 일어난 일이다. 이런 까닭에 초대교회에는 떡을 떼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전통이 있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사도행전 20:7)

그 주간의 첫날, 곧 무교절 후 첫날은 지금의 부활절을 뜻한다. 2021년 부활절, 주님의교회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떡을 나눈다. 콩이 든 백설기 1,800개가 준비되어, 봉사부에서 1부~4부 예배 참석하는 성도들에게 나누어 드린다. 이 떡은 광야의교회, 곤지암비전교회, 그리고 섬김과나눔을 통해 이웃과도 함께 나눈다. 모름지기, 부활절에는 떡을 떼어야 한다.

함줄함울

모십니다

재택의 시대, 정말 가치 있는 재택 사역!

홍보출판부에서는 <함글함글>을 만들고, 홈페이지를 관리하며, 출판물을 만듭니다. 작년에 새로 개편한 홈페이지에서도 전과 같이 <함글함글>을 보실 수 있지만, 2009년부터만 실려 있을 뿐 창간호는 볼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교회 역사의 소중한 자료인 <함글함글>을 홈페이지에 창간호부터 수록하는 일과 함께, 모든 기사를 디지털로 전환하고, 검색을 통해 찾고 싶은 기사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기능을 넣으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지난 <함글함글>의 모든 기사를 다시 손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기계적으로 처리하기가 어려운 까닭은, 신문의 특성상 쪽 기사가 많고 스캐닝 과정에서 오류가 많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교회 공동체 가운데 자원봉사 하실 분을 모시려고 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함글함글>의 PDF 이미지를 메일로 받으신 후 맥에서 한글 파일로 입력하셔서 메일로 다시 보내주시면 되는 아주 쉬운 일입니다.

재택의 시대, 재택으로 가능하며 틈틈히 주님의교회 역사 기록을 정리하는 이 소중한 사역,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hamletter@daum.net 으로 “함글함글 디지털화 사역 지원”제목과 함께 연락처와 성함을 보내주세요!

홍보출판부

교회 일정

4/4(주일) 부활주일

4/18(주일) 장애인주일

알립니다

1. 세움학당 제2기(2021년)

교육기간 : 상반기 _ 4/10(토) ~ 6/26(토) (12주)

하반기 _ 10/2(토) ~ 11/27(토) (8주)

교육장소 : 현장 또는 온라인(ZOOM)으로 진행

등록비 : 5만원(교재비 / 2학기분)

문의 : 이은미 전도사(010.2376.6561)

2. 시니어선교학교(온라인)

일시 : 4/20(화) ~ 6/15(화) 매주 화 오후 7:30 ~ 9:30

대상 : 40세 이상 모든 성도

모집 : 4/11(주일)까지

문의 : 윤경수 목사(010.9407.3709)

3. '부활절 예배' 후 떡을 나누어드립니다.

이웃들과 함께 부활의 기쁨을 더욱 풍성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함글함글, 원고를 기다립니다

주님의교회 신문 <함글함글>은 성도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담긴 값진 원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앙간증, 사역후기, 교회 안의 미담이나 칼럼, 기행문, 단상 등 주님의교회 공동체와 같이 나누면 좋은 어떤 글이라도 보내시면 됩니다. 메일 hamletter@daum.net 으로 보내주시면, 편집지침에 따라 검토하고 지면 사정에 맞추어 게재합니다.

함글함글

함글함글

발행인 : 김화수

편집인 : 심동욱

발행처 : 주님의교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길 16 정신여고 내

02)416-5181~2

www.pcltv.org

편집 : 홍보출판부

<함글함글>은 주님의교회가 발행하는 문서선교지입니다. '함글함글'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로마서 12:15) 말씀에 바탕을 두고, 교회 안팎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려는 뜻을 담은 이름입니다.

교회 공동체 여러분의 좋은 글, 소식, 간증, 기사제보를 기다립니다. hamletter@daum.net



다음세대를 세우는 주님의교회 세움학당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_ 잠언 22:6 [마땅할 당]

기간 4.10 ~ 6.26 (상반기)
10.2 ~ 11.27 (하반기)

시간 매주 토요일 6pm

대상 주님의교회 모든 성도

문의 이은미 전도사(010-2376-6561)

강사진

 고원석 교수 장신대 기독교교육학과	 김도일 교수 장신대 기독교교육학과	 김화수 목사 주님의교회 담임목사
 박상진 교수 장신대 기독교교육학과	 신형섭 교수 장신대 기독교교육학과	 이상익 교수 장신대 목회신학과
 이상훈 목사 주님의교회 유유청청	 이은미 전도사 주님의교회 유유청청	 임경순 목사 주님의교회 유유청청
 장순애 교수 영남신학대 기독교교육학과	 정구민 목사 주님의교회 유유청청	 정영택 목사 중경 총회장, 다세연 대표
 홍정근 목사 강남연동교회 담임, 교목협	 주선영 목사 전 모세골공동체교회 부목사	